

2006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사장님 발간사

오늘 우리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단결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의 주역인 여성운동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데에는 이 운동을 집행하고 있는 여성 활동가들의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과 꿈을 접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선 그들에게 재충전과 재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 여성단체의 활동가들이라는 것은 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근무 시간의 한정이 없는 것은 물론 휴일도 반납해야 하는 것이 다반사인 이들에게 생활인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막대한 처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확장시절에 사명감으로 시작한 활동가로서의 열정이 장기간 유지될 수 없다는데서 활동가 층의 허리가 약한 U자형의 구조를 탈피할 수 없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작은 출발로서 시작된 프로그램이 활동가들의 애로상황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교보생명>의 전적인 재정 후원으로 재단이 전개하고 있는 '짧은 여행, 긴 호흡', '도움닫기 프로젝트'입니다.

2006년에는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여성활동가들의 삶과 재충전을 지원하는 '짧은 여행, 긴 호흡'과 활동가의 전문성 키우기를 지원하는 '도움닫기 프로젝트'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짧은 여행, 긴 호흡'을 통해 그간 열악한 활동 조건으로 소진된 많은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재충전을 하였다면, '도움닫기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활동가들의 역량이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4회째 진행된 '짧은 여행, 긴 호흡'을 통해 2006년에는 19개 팀, 132개 단체, 259명이 참가하여 지난 4년 동안 참가자 규모가 총 957명을 기록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양적인 성장과 함께 단체들의 다양한 기획을 통해 위 지원사업은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지역 내 타 단체와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어 하고 이를 통해 여성 활동가로서의 비전과 꿈을 재확인하고 그 에너지를 다시 현장에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도움달기 프로젝트’는 2005년 228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성공익활동가에 대한 기술적 지원사업 개발을 위한 욕구조사를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2006년 첫 공모를 통해 자신이 몸담은 현장에서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다양한 훈련과 교육, 그리고 권역별 모임 등을 자체 기획, 실천하여 활동가 개개인과 여성계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서로 교류하여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각 단체가 지역 내 중심점이 되는 과정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시도와 경험으로 자리하게 된 본 프로젝트는 여성공익활동의 발전, 나아가 시민사회운동의 지속가능한 꿈을 현실화 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쉽고 재충전 그리고 전문적 역량을 균형감 있게 지원하는 본 사업은 여성단체와 활동가뿐 아니라 이 사업을 지원하는 기업의 사회공헌팀 그리고 여성단체와 이들을 연결해내는 재단, 이상 3자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낸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여성단체와 활동가 그리고 재단과 <교보생명>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도 재충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성활동가~~ ^{이 10년고인} ~~쉽고 재충전~~ ^{즐거}을 지원한 2006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의 사업결과 보고서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행복한 사업을 통해 참여 활동가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신선한 공기와 새로운 경험, 모처럼의 쉼과 색다른 학습을 통한 채워짐이 이 보고서를 접하는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남을 돕고자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여성단체 활동가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교보생명>에게 특별한 감사함을 드리며 좋은 기획으로 프로젝트에 보람을 더하게 한 파트너 기관의 관계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